

# 오매 단풍들것네

김영랑

“오매, 단풍 들것네.”

장광에 골 붉은 감잎 날아오아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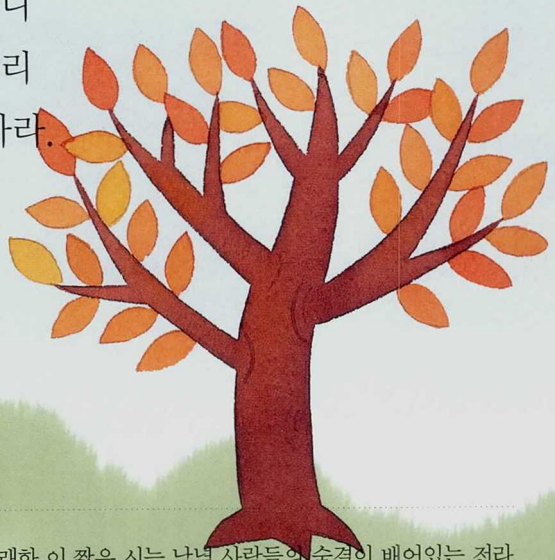
“오매 단풍 들것네.” ?

추석이 내일모레 기둘리니

바람이 자지어서 걱정이리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오매, 단풍 들것네.



김영랑시인의 가을 단풍을 노래한 이 짧은 시는 남녘 사람들의 숨결이 배어있는 전라도 사투리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다정다감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독대에 날아든 한 장 붉은 감나무 잎새를 보며 “아! 가을이 오고있네!” 라고 감탄하는 누이의 표정을 보면서 이제 곧 추석 살림살이, 겨울 추위까지 걱정할 누이의 속마음까지 바라보고 있는 영랑 시인의 따뜻한 눈길이 느껴지지요.

일제 시대에 우리 끊임없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시로 적어내고 문학을 위해 애를 많이 쓰고 글을 많이 남긴 시인의 작품 중에 제일 유명한 <모란이 피기까지는>도 좋지만 가을이 깊어지는 이때 감나무 붉은 잎을 보면서 “아! 정말 가을이 깊었네. 아! 단풍이 들었구나.” 느껴보는 것도 좋겠지요?

글 · 김영숙 (시인 · 해오른누리 기획실장)